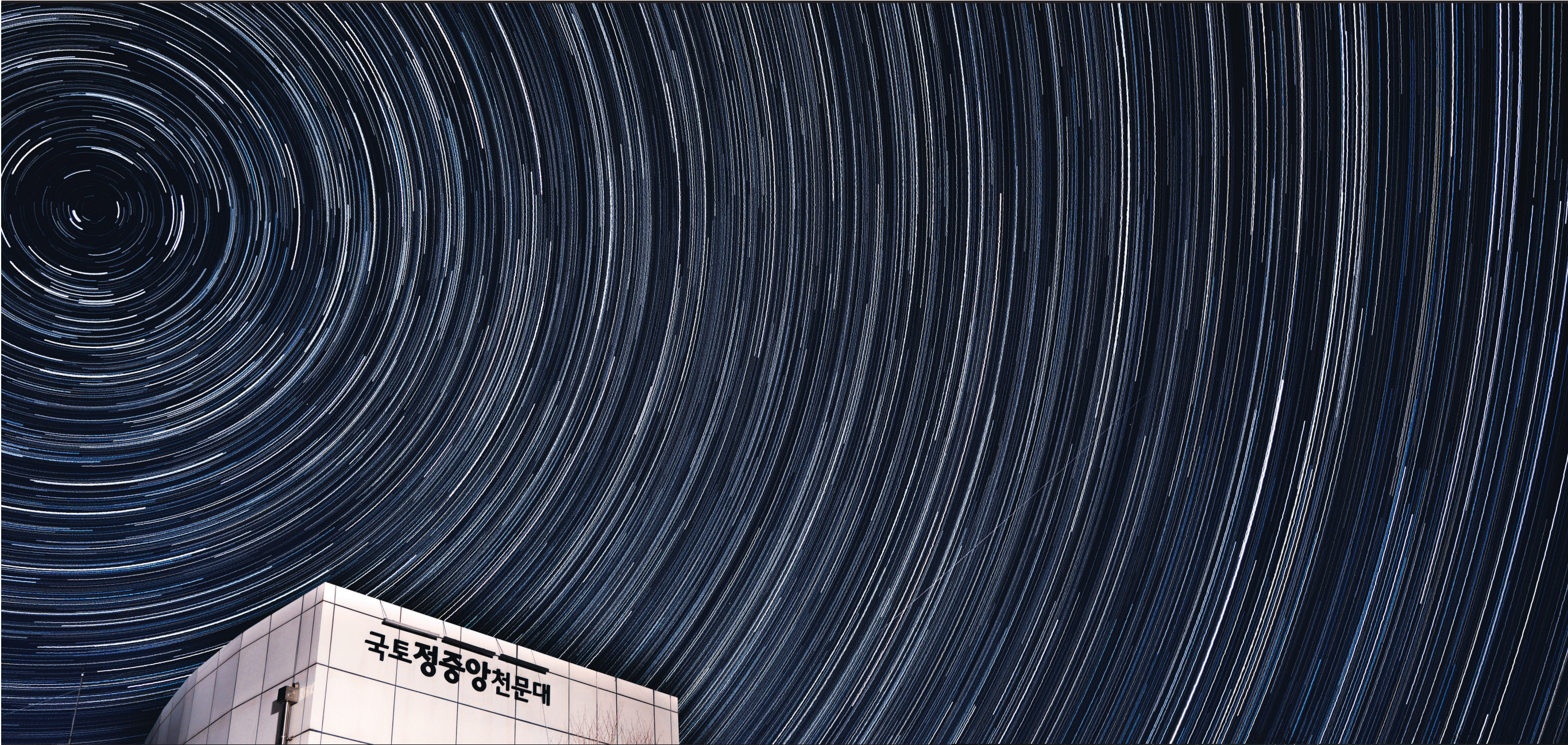




〈42〉 한반도 정중앙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천문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그 이름만으로도 의미가 가득한 이곳에 대한민국 하늘을 가장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바로 국토정중앙천문대(國土正中央天文臺). 한반도의 정중앙에서 밤하늘과 우주를 연결하는 이 천문대는 과학체험을 넘어 마음을 채우는 쉼터로서 많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여름, 별을 보며
한반도 ‘중심’에서 은하수 보며



국토정중앙천문대 전경.

◇중심에서 보는 하늘, 천문대의 탄생=대한민국 국토의 4극(동, 서, 남, 북) 지점을 기준으로 중앙을 찾으면 바로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도촌리다. 그야말로 ‘국토의 중심’. 국토의 정중앙이라는 위치적 상징과 함께 이곳은 밤하늘을 즐기기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07년 5월 이 자리에 국토정중앙천문대가 공식 개관했다.

국토정중앙천문대는 구경 800mm의 반사망원경을 주망원경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보조관측시스템으로 250·300mm 반사망원경, 150mm 굴절망원경, 200mm 돔소니안 망원경 등이 설치돼 있으며, 이 외에도 찾아가는 천문대 등 외부 관측 프로그램을 위한 이동식 소형망원경, 쌍안경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남녀노소 천문학을 좀 더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다.

천문대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돼 있다. 1층은 전시교육실과 강의실, 천체투영실이 있다. 전시교육실은 국토정중앙과 우주의 중앙이라는 주제로 국토정중앙점에 대한 전시물, 태양계의 중심, 은하의 중심, 우주의 중심 등의 주제로 전시물이 구성돼 있다. 강의실의 경우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으로 돼 있으며, 천체투영실은 계절별 별자리 및 우주와 관련된 영상 상영하는 곳으로 58석의 좌석이 준비돼 있어 다양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건물의 외관도 남다르다. 설계도면의 위치를 보면 반원 모양의 천문대 건물의 정면이 ‘국토정중앙점’을 향해 있으며, 또 천문대 앞에 위치한 한반

국토 정중앙 향한 반원 천문대
사계절 별자리·천문현상 관측
즐길거리 다양하고 접근 쉬워
핵심 문화자산으로 급성장
추석 연휴 탐방 프로그램도

도 지도 조형물에는 국토정중앙점을 표시해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의미를 강조했다.

◇여름 밤하늘 은하수 보는 특별한 경험=국토정중앙천문대는 일반적으로 산꼭대기에 자리한 천문대와는 달리 높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또 어둡고 별을 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계절별 별자리뿐 아니라 계절을 대표하는 다양한 답스카이 천체들도 관측이 가능하며, 특별하게 일어나는 천문현상도 관람객들에게 공개 관측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새벽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월식’ 진행 당시 공개 관측회를 운영했으며, 이날 보름달 풍선을 활용한 포토존이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도 했다.

특히 국내에서 현재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은데, 양구는 여름 밤하늘의 은하수를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인기가 많다. 이에 양구국토정중앙천문대는 단순한 관람 시설이 아닌 지역 내 핵심 문화자산으로 성장 중이다.

실제 지난해 천문대의 방문객 수는 9019명으로 2023년과 비교해 15% 증가했다. 지난 2022년 당시 4813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인원이다.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더욱이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천문대는 양구군의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각종 관측 프로그램부터 축제까지 콘텐츠 풍부=이와 함께 천문대는 각종 관측 프로그램과 축제 등을 열어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선 매일 운영되는 상시 프로그램인 ‘야간 관측 프로그램’은 평일 1회 주말 및 공휴일 2회 운영되고 있으며, 별자리 설명 및 망원경을 이용한 다양한 천체관측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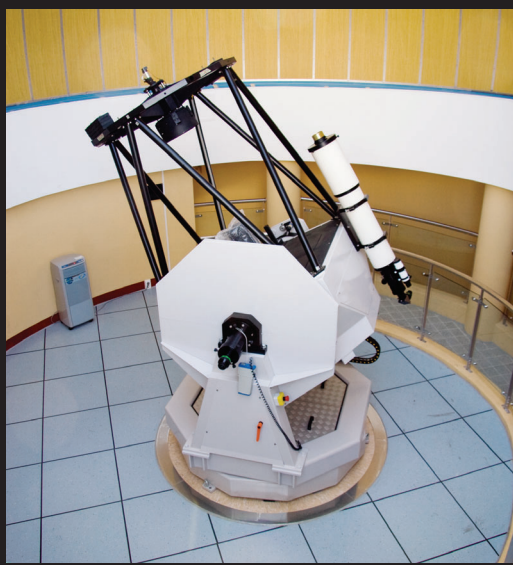
또 천문대를 찾기 어려운 학생 및 지역을 찾아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천문대’ 프로그램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천문대를 찾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과학창의활동, 우주이야기, 관측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천문대 소속 직원들이 이동식 망원경을 갖고 학교나 교육기관으로 찾아가 누리호, 우주망원경, 달 우주기지 등 최신 우주탐사와 개발에 관련된 과학 이야기에 대한 강의도 열고 있다.

힐링 프로그램인 ‘별명’도 있다. ‘물멍’, ‘불멍’처럼 양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명을 때리는 프



스페이스 X



주망원경

로그램이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밤하늘 여행, 별명 프로그램 두 가지의 별명 프로그램을 각 월 1회씩 운영하고 있다.

천문대의 가장 큰 행사인 ‘양구 보름달 축제’는 추석 연휴 간 운영되며 다양한 과학 체험 및 버스킹 공연, 국토정중앙점 탐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올해는 10월5~7일 사흘간 천문대 일원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의 소규모 관광과 자연 친화적 관광으로 트렌드 변화에 맞춰 천문대 일원에 별을 보면서 캠핑할 수 있는 ‘국토정중

앙 하늘별 체험장’도 만들었다.

기존 국토정중앙천문대 캠핑장은 38개의 캠핑장 사이트와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등의 편의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여기에 글램핑장 5개소, 오토캠핑장 8개소, 편의시설(화장실·샤워실) 3개소, 개수대 3개소, 야외무대가 추가됐다. 이에 양구군은 천문대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 시너지를 높이면서 더 많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일보=이규호기자 hokuy1@kwnnews.co.kr

사진=양구군 제공